

# ‘신발 수출 왕국의 연구 기반 조성’

-한국신발연구소 발족-

조맹섭

## 1. 이벤트의 개요

본 이벤트는 1970년대 이후 신발수출 세계 1위를 차지해 온 소위 ‘신발수출 왕국, 한국’의 신발산업의 기술교육 및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후발 경쟁국들의 부단하고 집요한 추적을 물리치며 난공불락의 ‘선진신발수출 왕국’의 아성을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한국신발연구소의 설립종합계획안 작성과 설립추진과정에서 야기된 일련의 사실들에 대한 기록이다.

당시(1985년) KAIST 전산개발센터 8그룹 연구진에 의해 작성된 한국신발연구소 종합계획안에 제시된 신발연구소는 상공부 산하 출연 연구 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대별된다. 한 분야는 연구의 기능이고, 다른 한 분야는 기술교육의 기능이다. 첫째 연구기능에는 디자인 연구, 소재연구, 공정연구 등이 포함되고, 둘째 기술교육의 기능은 전문기술인력의 양성과 기능인력의 양성으로 구분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소는 구두제조 산업과 운동화제조 산업을 공히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설립추진과정에서 구두제조산업부분은 따로 떨어져 나가 버리고 운동화 제조산업만 참여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상기 종합계획안이 정부나 기업 등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없이 작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이유들로 인해서 연구소의 설립 추진 과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숏한 사연들과 진통들로 점철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발산업의 구석구석에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원천적인 문제점들을 그냥 방치한 채 간과해 버릴 수 없는 ‘학자적인 양심’과 이왕에 내친 걸음이니 끝장을 보자는 ‘근성’으로 극복한 것이다.

마침내 1977년 4월 6일 대통령의 재가를 계기로 추진을 시작한 지 2년여만에 한국신발연구소는 상공부산하 연구소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아무리 굳게 닫힌 철문이라도 두들기는 자의 집요한 집념 앞에서는 열리기 마련이라는 엄연한 진리를 입증이라도 해준 듯하다.

## 2. 추진동기 및 배경

점심 식사 후 연구소 간부들은 으레 KIST 연못 한쪽 주변에 삼삼오오 둘러서서 한담을 나누곤 한다. 식후 소화도 시킬 겸 연못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에 머리도 식힐 겸, 때로는 연구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갖가지 연구에 대한 화재로, 때로는 시국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때로는 쓰잘 때 없는 화재로 고참간부들과 신참간부들간에 격 없이 제법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곤 한다.

“요즈음 구두연구 한다며? TV 생방송에도 출연하고 출세했더군 그래” 원로급 고참간부 중에 친분이 있는 한 분이 내게 말을 걸자, 옆에 있던 다른 분들도 두눈이 동그래지며 내입에서 어떠한 대꾸가 나올지 궁금해 하는 눈치들이다. “네, 출세한 셈이지요” 라고 대꾸하자, 또 옆에 있는 분(연구소 원장)이 무슨 연구인데 그러냐고 다구쳐 물었다. ‘별 걸 다 연구하네’ 하는 눈치다. “신고 계시는 구두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6시 퇴근시간이 되면 연구소 연못 근처는 각 방면으로 가는 퇴근버스를 타기 위해 종종 걸음들로 분주해진다. 그러나 나는 연구원 몇 명과 함께 금호동에 있는 금강제화 공장으로 출근했다. 그곳 공장의 기술자들과 밤 12시경까지 실험용 구두를 제작하기 위해서다. 처음 며칠 동안은 힘들었다. 도무지 기술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려고만 할 뿐 은근히 겁까지 주는 것이었

다. 헛수고 하지 말라는 등, 가르쳐 줘 봤자 모를 거라는 등, 이리저리 회피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러나 구두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제화기술을 배워야 했다. ‘쟁이’들의 끈조를 말로만 들었지 몸소 체험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미칠지경이었다. 두들겨 패주고 싶은 충동을 꺾고 참느라고 진땀을 뺐다(그러다 얻어 맞겠지만). 안되겠다 싶어 기술자들 중 힘깨나 있어 보이는 왕고참 몇 사람을 꼬셔서 근처에 있는 소줏집으로 가서, 소줏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인간적인 대화부터 시작하여 이런저런 얘기로 금방 친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참 순진하고 때가 묻지 않았다. 자기네들의 존재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격이 없게 되자, 좀처럼 풀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던 분위기가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다. 먹물 출신(공부 많이 한 사람)치고 당신은 기본 자세가 되먹은 듯하여 적극 도와줄테니 자기네들 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것이다.

결국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고, 실험도 급진전되었다. 구두 설계의 문제점을 거의 섭렵하고, 나름대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실험을 통해 하나씩 찾아 나갔다. 마침내 구두제조업계에서 수십년 동안 종사해온 원로급 기술자들까지 친구처럼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업계의 많은 것들을 직접 보고 배우고, 또 이들의 입을 통해서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신발산업은 걸만 번지르한 사상누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근원적인 문제들을 풀 것인가? 누구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 줄 것인가?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궁리 저런 궁리에 머리 속이 복잡해서, 그냥 못 본 걸로 못 들은 걸로 덮어 버리자니 양심의 한구석이 찢렸다. 공업진흥청의 관리들에게 신기한 사실이라도 알리듯 소상하게 얘기해 줬다. 쓸데없는 짓 말라는 투로 일축해 버렸다. 내심으로 은근히 오기 같은 감정이 일었다. 자기네들이 발 벗고 나설일인데…….

매스컴의 힘이 세니까 이를 이용해 공감대를 넓히기로 맘 먹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국내 신발산업의 문제점과 대비책을 역설하였다. 어느 날 공업진흥청장을 만났더니 다짜고짜 눈을 부라리며 월권을 하지 말란다. 내가 틀린 얘기를 했냐며 바짝 대들었으나 별 소득없이 얼굴만 찌뿌린 채 끝났다. 무사안일에 직무유기를 한다는 생각에 김이 빠져 버렸다. ‘하필이면 내가 왜?’ 하는 생각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마음 속으로 수차에 걸쳐 자문자답을 해 보았다. ‘내

가 미쳤냐'를 뇌까리며, 그냥 덮어 버리는 쪽으로 결심하고 마음 편하게 살기로 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운동화에 관련된 프로젝트로 회승, 국제, 삼화, 태화 등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신발수출조합이 적극 나선 것이다. 또 실험용 운동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운동화 제조업계의 기술자들과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들 대부분이 매스컴을 통해 이미 나를 잘 알고 있어서 작업수행에 별 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OEM(주문생산)방식으로 성장한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종업원 수가 10,000명 안팎에 이르렀다. 부산 인구 5명 중 1명, 즉 20%가 신발산업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나 곧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구두제조산업과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 한건의 특허도 없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바이어들의 손바닥 위에서 성장하며 놀아나는 초대형 맘모스가 연상되었다. 덮어 버리기로 맘 먹었던 양심이 다시 고개를 쳐들게 된 것이다. 밤잠을 설치며 며칠 밤을 뒤척거렸다. 어느덧 마음 속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는 학자적인 양심이 돼야 한다는 부르짖음이 나를 지배했다. '그렇다!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종합계획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종래에는 휴지몽치가 되어 나뉘굴더라도 인쇄된 책자를 가지고 한 사람씩 엮어서 그 행렬이 청와대에 닿게 하자.'

금방이라도 성사될 것 같은 설레임에 마음마저 들뜨게 된 것 같았다. 종합계획서의 내용을 머리 속에서 그려봤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수치화된 자료를 곁들여야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생각에 신발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수치와 그래프를 곁들여 한국신발연구소 설립계획안을 완성하여 기존의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의 별책으로 인쇄하였다. 물론 주어진 프로젝트의 예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성기수 박사님께서 용기 있게 추진하라며 흔쾌히 허락하셨다. 이 계획서를 신발수출조합의 부이사장께 보이며 향후 작전을 설명했다.

일차로 신발업계 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입장 연설을 하였다. 5년 후 또는 10년 후 중공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저임금으로 무장하여 바이어들을 낚아채 버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모두들 눈을 내리깔고 앉아 있는 모습들이 마치 별받는 어린 학생들마냥 굳어져 있었다. 성공적이었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 여세를 몰아 상공부로 쫓아가 담당 국장에게 밀어 붙였다. 표정이 시큰둥해지더니 알았다고만 했다. 약간 김이 섰다. 나중에 담당사무관을

통해 전달된 내용은 일격에 목살이었다. 국장으로서 임기가 다 되어서 곧 다른 자리로 옮겨갈 거라는 귀뜸도 곁들여졌다. 담당국장이 목살해 버렸으니 이제 모든 게 공염불이 된 것이다. 물거품을 보는 듯해서 약이 바짝오르고 식욕마저 떨어져 버렸다.

‘이왕에 내친 걸음이니 갈 때까지 가보자. 사나이가 칼을 뽑았는데 끝장을 내야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한 사람씩 만나서 동참을 종용해보자. 표발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얼굴 돌리는 일은 없을 테지.’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러 다녔다. 대부분이 박수를 보내며 격려도 잊지 않았다. 그들 중 이상희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을 보여 주어 용기충천했다. 결국 이상희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자, 마스크들도 앵무새때마냥 일제히 거론하였다. 이와 때를 맞춰 상공부의 담당국장이 새로 부임해왔다. ‘바로 이것이 기회다’라고 적극 앞장서서 추진한 것이다. 상공부 장관이 부산에 내려왔을 때 신발업계 사장들이 내가 작성한 연구소 설립계획안을 들이밀며 숙원사업으로 건의하게 되자 모든 게 작전대로 들어 맞으며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때를 맞춰 신발연구소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나도 그 속에서 불을 활활 질러대며 청와대 결재에 대한 치밀한 작전을 상공부와 같이 짰다. 드디어 87년 4월 6일 대통령 결재가 났다. 대통령이 설립자가 되면서 내는 돈을 100만원으로 올렸는데 0을 하나 더 붙여 1000만원을 내겠다고 결재한 것이다. 상공부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실로 2년여의 각고의 어려움 끝에 맛보게 된 희열의 순간이었다. 그 동안의 갖가지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 갔다. 비록 힘없는 연구원이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한가지 해 냈다는 보람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그 동안에 직·간접적으로 나를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사회가 구성되어 이제는 신발연구소 이사의 자격으로 굵직한 문제들을 하나씩 푸는데 참여했다. 일단 2차 이사회까지 참석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영국으로 가게 되었다. 사상누각에 주춧돌을 쌓는 대업(?)을 성사시켰으니 이제 나 자신의 주춧돌을 쌓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영국으로 떠나게 된 것이다.

### 3. 신발산업에 미친 영향

국내 신발산업의 시작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발산업 자체가 노동집약적일 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일본의 지리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부산에 신발공장을 설립하면서부터 신발산업이 시작된 것이다. 1970년대에 이르러 수출이 활발해져 국내 경제 성장에 신발산업이 주역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기술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양적인 팽창만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 교육과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었고, 연구소 설립 이후 뒤늦게나마 중소기업들과 대기업들이 교육과 연구의 기반 조성에 앞을 다투어 동참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향후 산업발전에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